

“전통사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회창 총재, 조계사 참배 후 지관스님 예방



지관 스님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연아심경 경판을 선물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구립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담에서 지관 스님은 “자연보호를 위한 관련법이 까다로워야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전통사찰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회창 총재는 “전통사찰은 우리나라 문화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통사찰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관 스님은 환담 후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에게 <연아심경> 경판을 선물하고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환담에는 이회창 총재의 부인 한인옥 여사와 총무원 기획실장 정적 스님, 재무부장 정년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자유선진당 박상훈 사무총장, 이명수 대변인 등이 동석했다. 한편 이회창 총재 내외는 지관 스님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헌화하고, 삼배의 예를 올렸다. **김진성 기자**

“부처님 말씀없이 佛法도 없어”

조계종 불학연구소, ‘간경수행 입문’ 등 발간

서산 대사는 “교는 부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의 마음(敎是佛語 禪是佛心)”이라 했다. 선종 중심의 한국 불교를 오해한 사람 가운데는 마음 닦기가 중요하며 부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다. 경전은 고해(苦海)를 건너는 뗏목이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무엇을 타고 강을 건널지, 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탓에 ‘팔만대장경’은 ‘장경각’에 보관된 유물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읽혀지지 못했다. 경전을 읽지 않는 분위기는 불교출판 시장 위축은 물론 포교에도 어려움을 초래한 자충수가 된 것이 사실이다.



경의 내용을 깊이 사유하는 일은 바른 믿음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이란 설명이다.

간경수행은 바른 믿음, 바른 앎과 깨달음, 삼매의 궁극적 지혜의 성취는 물론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영가전도와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간경수행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도하는 스님의 권유에 따라 경전을 정하는 것이 좋지만 이 책의 5장에는 어떤 경전을 읽을지에 대해서도 적었다. 경전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읽어도 닦음에 비해 자기를 바로 세우는 수행법이라고 소개했다. “경을 읽고

소요시간을 정해 읽는다.

한 경전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 책은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소의 경전을 읽되, 경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경을 놓지 말라고 설명했다. 또 간경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소리를 내어 읽고 △의심을 하고 질문을 만들 것이며 △공급하면 해설서를 참조하고 △수시로 메모할 것 등을 권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이번이 강원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사집(四集)>의 참고서라 할 수 있는 <사집사기(四集私記)>도 발간했다. <사집>은 <선원전집집도서> <화엄절요> <서장> <선요>를 모은 강원 교재다. 연구자를 위한 최초의 참고교재로 발간된 <사집사기>는 <사집(四集)>의 난해한 내용을 대강백들이 각자의 견해로 내용을 심화 연구한 저술이다. 불학연구소는 동국대 도서관에 보관된 필사본을 바탕으로 동국역경원 등과 함께 5년여 동안 불사를 회향했다.

현종 스님은 “월운 스님(봉선사 주시경)을 비롯해 정인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장),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의 교정 및 현토와 감수 덕분에 출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찰 전기 안전점검하세요”

조계종, ‘사찰 전기안전 진단·현황보고서’ 발간

매년 일어나는 화재는 3만여 건. 이 가운데 전기로 인한 화재는 1만1000여 건으로 화재의 30%를 넘는다. 사찰 화재 역시 전체 416건 중 171건이 전기합선 및 누전에 의해 발생했지만 그동안 기초조사가 돼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구립 24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중 법주사, 개심사, 불국사 등 33곳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요사찰 전기안전 진단 및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사찰 전기시설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사찰에서 건물 내·외부 배선과 전선 재질 등이 노후한 것이 발견됐고, 누전이 발생했을 시 이를 차단하는 시설이 미비했다. 특히 소규모 사찰의 경

우 문어발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화재의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계획을 수립했던 이분회 문화부 행정관은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개의 사찰도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찰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문화재 건축물의 전기·소방 설비가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건축물은 설계와 시공 등에 전기분야 기술자 참여 등 전문 시방서와 지침에 의한 기술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진전사·북천사·내원정사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 933개로 늘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는 구립 19일 양양 진전사(사주 흥구, 부산 북천사(주지 경호),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린)를 전통사찰로 추가 지정했다.

진전사는 도의 국사가 창건해 선종을 개창한 사찰로 조계종 선종의 근원지로 중요한 사찰이다. ‘진전사지 3층석탑(국보 제122호·사진)’과 ‘진전사지 부도(보물 제439호)’ 등 중요문화재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북천사는 약사전, 명부전, 칠성각 등 전각들이 전통 건축양식을 갖췄다. 부산시 유형문화재 7점(불화) 외에도 다수의 불경을 소장하고 있다.

내원정사도 대적광전 등이 불교 전통 건축양식에 의해 건립됐다. 문광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내지 전각 등 가람배치가 전통사찰의 품격에 어울린다”고 말했다.

진전사 등 3개 사찰이 신규로 지정돼 전국의 전통사찰은 모두 933개로 늘어났다. 신규로 지정된 사찰들은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전통사찰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게 된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호 및 예산지원 등을 받게 되나, 매도 허가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조동섭 기자**

사 령

출: 김진성, 이나은, 이상언
편집국 취재부 취재기자 2009년 1월 1일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저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복환 (前 KBS/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buddhanews.com

인디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초발심으로 기축년 포교원력 다진다

포교원, 17일 속리산에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월 17~18일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교대회는 포교활동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신년 포교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대상으로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교역직·일반직 중무원, 교구본부 주지 스님 및 포교국장,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 불교대학 소임자 등 포교신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참석자들은 2008년 한해 활

동을 되짚어 보고, 신년단체 2009년 사업계획서 및 새해 슬로건을 담은 서원을 발표한다.

한해동안 포교활동에 힘쓴 동료자와 단체에 감사패와 격려금도 전달된다.

포교원 관계자는 “포교현장에서 활동가들간의 우호를 다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독려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폭넓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는 2005년부터 진행돼 포교교류의 장이 되어 온 ‘포교전진대회’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개원

김천 직지사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구립 19일 제4기 4차 행자교육원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제36기 행자교육원 개원 일정을 확정했다.

행자교육원은 2008년 9월 5일 이전 입산해 12월까지 교육원에 행사등록 후 교구본사행자교육을 필한 255명(남학생 179명, 여학생 76명)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4일~3월 8일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에서 열린다. 접수는 1월 6일까지 해당교구본사에 하면된다. 입교시에는 <행해입문> I·II <행해독송집> <승가의법> 등 행자교육 교재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02)2011-1801 **조동섭 기자**

불기 2553(2009)년 기축년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